

정지용, <춘설(春雪)> (수능특강 문학편 p.09)

<보 기>

춘설, 곧 봄눈은 흔히 ‘꽃샘추위’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방해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춘설은 오히려 봄의 생명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चु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미나리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चु고 싶어라.
→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수능특강 문학편 p.09)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갑자기 문을 열자고 한다. 왜 열자는 걸까? 그것도 그냥 열자는 것도 아니고 '선뜻!' 열자고 한다. 문을 "확!" 열자는 거지.

문을 선뜻! 열었더니 저 멀리 있는 산이 이마에 차갑게 닿듯이 들어온다. 이곳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산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까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는 건, 산이 차갑다는 뜻인가? 그럼 왜 차갑지?"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절(雨水節)이라는 건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즉, 겨울과 봄 사이의, 봄이 다가오고 있는 절기라는 말이다. 이런 날의 초하루 아침이다. 봄이 오기 전,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때의 아침의 공기를 생각해보자. 아직은 차갑지만, 아주 상쾌한 바로 그 공기. 시에서는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간적 배경을 선택한 것이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다시, 첫 연에서 말한 먼 산이 이마에 닿듯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걸 첫 연에서 생각했던 것과 연결해보자.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은 차갑다. 왜? 산 위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차갑다! 아하! 눈이 쌓인 산이 창 밖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을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고 표현한 것이구나!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과 '이마받이'를 한다. 산의 인상이 이마에 부딪힐 듯이 다가오는 거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

문을 선뜻! 열었더니,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나의 이마에 부딪힐 듯이 선명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그 차가움이 나에게 느껴질 정도다. 우수절(雨水節)이라는, 아직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날의 아침이 가진 상쾌한 공기와 함께, 먼 산의 눈 덮인 풍경이 차갑도록 다가온 것이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얼음이 금이 갔고, 바람이 새로 따른다. 봄이 오니까 얼음이 살살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은 금이 갔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바람은 향기롭다. 왜 향기로울까? 봄의 기운을 담은 바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흰 옷고름'은 뭘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얼음이 녹은 그 사이의 흰 틈. 그것을 흰 옷고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화자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없다.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라고 한다면, 얼음 사이로 부는 봄기운 충만한 바람이 향기로운 것이며,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얼음이 금 간 사이로 부는 바람이 화자의 흰 옷고름을 스쳐 지나가며 향기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봄의 향기로운"은 만들어진다.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 몸을 웅크리며(웅송그리고) 살아난 것이 꿈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게 서럽다. 왜 서러운 것인가. 지금의 시간은 이제 막 봄이 다가오는 시간이다. 즉, 봄이 다가오기 이전의 시간은 겨울이다. 겨울 내내 차가운 곳에서 웅크리며 있던 기간들이 꿈같이 서러웠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지난 겨울은 힘들었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낫설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겨울 내내 웅크리며 살았는데, 봄이 오면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 '겨울 - 봄'으로의 변화가 낫설다는 것이다.

미나리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연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의 제목이 '춘설'이라는 걸 떠올려보자. '봄의 눈'이라는 걸 봐서, 봄과 겨울의 중간이지 않겠느냐. 이 연을 통해서 "겨울 - 봄의 계절 전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눈은 지금 철에 맞지 않게 내렸다. 겨울의 막바지에 내린 눈이거나 봄의 시작에 내린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화자는 갑자기 봄이 오기 전에 내린 눈에 옷을 벗고 춥고 싶단다. 왜일까? 옷을 벗으며 다가오는 봄에 대한 반가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햇옷'은 겨울에 입는 옷이다. 솜을 넣어 만든 겨울옷은 벗어버리고, 아직은 차갑더라도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완연히 느끼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보 기>

춘설, 곧 봄눈은 흔히 '꽃샘추위'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방해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춘설은 오히려 봄의 생명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보기 이해

㉓ 시적 배경 :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때.

㉔ 봄눈은 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봄의 생명력을 돋

보이게 만드는 소재.

㉠ 시적 화자의 태도: 다가오는 봄에 대한 기쁨.

<감상 Point>

★눈이 덮인 먼 산

→ 시적 화자가 문을 열고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대상. 철에 맞지 않게 내린 눈이 멧부리(산 꼭대기)에 쌓여있다. 이 눈이 철에 맞지 않게 내렸다는 건 3연의 ‘새삼스레’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연의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에 대해 차가움을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추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 우수절 아침의 상쾌함을 환기한다.

★흰 옷고름

→ 화자가 진짜로 입고 있을 옷.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선 화자의 옷고름에 봄바람이 스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혹은, 금이 간 얼음 사이의 틈을 ‘흰 옷고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이로 부는 바람은 역시나 향기로운 봄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어느 방식으로 보든, 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 봄 바람에 대해 ‘향기롭다.’라는 인상을 갖는다.

★설어라

→ “서러워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겨울날 자신이 웅크리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서러웠다는 뜻이 된다. 다가올 봄에 앞서서, 화자가 겨울에 겪었던 것을 돌이켜 보며, 정말 ‘서러울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낯설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태까지 겨울이라 웅크리고 살았는데, 다가오는 봄기운이 낯설다는 뜻이 된다.

★새순, 고기

→ 봄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들. 봄이 가진 생명력과 연관이 있음.

김현승, <눈물> (수능특강 문학편, p.31)

<보 기>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려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인 셈이다.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김현승, <눈물> (수능특강 문학편, p.31)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옥토’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 행은 ‘작은 생명’이 ‘옥토’라는 좋은 공간에 떨어진다고 말한다. 무엇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 ‘이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았을 정도로 순수하며, 깨끗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화자의 “전체(全體)”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지만, “이”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화자가 지닌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깨끗하며, 순수한 존재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드린다?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일까? 또, ‘더욱 값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 의문을 갖고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자.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 화자가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이란단. “이뿐”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알 수도 있고, 보조사 “도”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당연히 2연에서 말한 “이뿐”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 “이뿐”이라는 것의 속성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화자가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이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표현 대신 ‘나아중’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닌’이라는 표현 대신 ‘지니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화자는 “이”를 지녔는데,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이다. 어감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지닌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3연과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살펴보자.

3연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에게 “더욱 값진 것”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다. 그리하여 “이”가 지칭하는 대상은 가장 나중에 드릴 것이 된다. 가장 나중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아중”에 “지니인” 것이 된다. 아하! 3연에서 말한 ‘값진 것’은 지금 “이”가 지칭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가 지칭하는 대상은 화자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가장 나중에 드려야 할 정도로 가장 값진 것이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당신”이 등장했다. 3연의 내용과 이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값진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당신”은 참 신기하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게 과연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뭔가 대단한 인물이다. 꽃이 시드는 걸 보고, 열매를 맺게끔 만들 수 있는 인물. 즉, “당신”은 “절대자”가 된다.

아하, 그러면 앞의 1~4연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것이다. 가장 값진 것을 “절대자”인 “당신”께 드리려는 것이다. 그럼 이 “가장 값진 것”이 뭘까? 도대체 무엇을 “절대자”에게 드리려는 것일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당신”에서 더 이어진다. “당신”은 화자에게 “웃음”을 만들어주셨다. 그리고는 화자에게 “눈물”을 주셨다. 즉, 절대자는 화자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후, 슬픔을 주었다. 무엇으로 비롯된 기쁨인지, 무엇으로 비롯된 눈물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절대자”가 “화자”에게 “지어 주신 것”이 “눈물”이다. 즉, 화자는 “절대자가 지어주신 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내내 화자는 “이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화자가 가진 유일한 것은 “절대자가 지어주신 눈물”뿐이다. 아하! 그렇다. 연결해보자. 화자가 첫 연에서부터 꼭 얘기하던 것.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화자의 전체(全體)! 나아중 지니인 것이라 할 정도로 값진 것! 바로 “절대자가 지어주신 눈물”이었던 것이다.

이 시의 제목과도 연결지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화자가 “눈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가 된다.

<보 기>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인 셈이다.

→ 시적 화자에 대한 정보

㉠ 화자는 아들을 잃었으며, 그 슬픔을 신을 통해 달래기 위해, 이 시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다.

㉡ 화자에게 “웃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며, 절대 썩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눈물”이다.

<감상 Point>

★옥토 : 정말 가치있는 땅. 좋은 곳을 뜻한다. 이 시는 종교적인 색채,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기에, “옥토”를 성경적인 의미로 봐도 된다. 즉, “신이 주신 좋은 땅” 정도인 것이다.

★작은 생명 : 시적 화자가 흘리는 눈물을 뜻하는 것이다. “떨어진다.”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눈물은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장 나아줄 지니인 것 : 화자가 가진 눈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시적 허용이 쓰인 부분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 나무가 시들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선후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 뒤에 나오는 것, 열매의 가치가 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꽃과 열매의 선후 관계를 이곳에 넣어볼 수도 있다. 꽃보다 열매가 가치있듯, 웃음보다 눈물이 가치있는 것이 된다. 또한, <보기>와의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웃음’은 아들로 얻었던 기쁨이며, ‘눈물’은 아들을 잃으면서 얻었던 슬픔이다. 이 웃음과 눈물 모두 “당신”이라는 절대자가 지어주셨다는 표현을 통해, 절대자의 전지전능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수능특강 문학편, p.35)

<보 기 1>

시인은 「배꼽을 위한 연가 1」에서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 관계를 상징하지만, 시인의 이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빗댄 (나)의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보 기 2>

시인 김승희는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쓸까? 나/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시의 언어는 ... (중략) ...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은 심청가의 심청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신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희구로 나타나곤 한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지요.
→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수능특강 문학편, p.35)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 화자는 ‘어머니’라는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화자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인당수에 빠질 수 없으며, 살아서 시를 짓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당수’라고 한다면, 뭔가 생각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 아버지(=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 대신 몸을 던진 곳이 ‘인당수’다.

심청전에서 인당수는 이렇게,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화자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길 거부한다. 그리고는 대신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화자는 효를 거부하는 것일까? 화자는 불효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더 읽어보며 이유를 찾아보자.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 ‘공양미 삼백 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심청전에서 소재를 따온 것임이

확실히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 대신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은 화자가 심청처럼 공양미를 못 구하더라도, 인당수에 빠지지 않는겠다는 의지를, 1연에서 보여줬던 그 의지를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대신, 화자는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더욱 궁금해진다. 왜 화자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을 것이며, 살아서 시를 짓고, 여기 남아 책을 보겠다는 것일까?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 화자는 갑자기 나비와 새를 이야기한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고 날아간다. 새도 이와 비슷하다. 새는 날기 위해 자신이 있던 알 껍질을 부순다. 그렇게 새와 나비는 자신이 있던 공간(누에고치, 알 껍질)을 버리고 바깥으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화자는 이를 두고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죄입니까?”라고 물으며,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라고 묻는다. 그럼 이게 죄일까? 당연히 죄가 아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마찬가지로 알 껍질을 부수고, 온전한 새가 되는 것도 자연의 섭리다. 자신이 있던 곳을 버리거나 부수고, 자유로운 나비나 새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아하! 여러분들은 이제 화자의 의지가 어렴풋이 지나갈 것이다.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인당수에 빠지지 않고,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있던 공간(=알 껍질, 누에고치)와 비슷한 곳. 바로 어머니의 곁이다. 화자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나비, 새)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운, “시를 지으며 남아서 책을 읽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 위해, 어머니를 위해 몸을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불효가 아니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자연의 섭리가 된다.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지요.

→ 화자는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드리겠다고 한다. 또한,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린다고 한다. 왜?

어머니도 화자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일 거다. 화자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자력으로 “책을 읽고 시를 쓰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물이 되길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화자는 다시 한 번 지칭어를 통해 말한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가 뜻하는 바는 당연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화자는 이를 두고 “외국어와 같은 것”이라 비유한다. 어머니가 점자 읽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외국어를 각자 배우지 못하면, 외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의 친구가 영어를 잘한다고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도 영어를 배우고 공부해야만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라는 화자의 말은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심청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 몸을 던진 인당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심청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한들, 심봉사의 눈은 떠지지 않는 법이다. 심봉사가 책을 읽고, 시를 쓰는 자유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점자를 배우고 읽는 법을 배워,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이렇게, 화자는 **‘인당수’**는 허상임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 기 1>

시인은 「배꼽을 위한 연가 1」에서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 관계를 상징하지만, 시인의 이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빗댄 (나)의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보기 이해

- ㉓ 시의 제목에 있는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뜻한다.
- ㉔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빗댄 것은 ‘어머니’와 ‘자식’은 모두 **따로따로 살아가는 존재로, 둘의 관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2>

시인 김승희는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쓸까? 나/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시의 언어는 …(중략)…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은 심청가의 심청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신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희구로 나타나곤 한다.

→보기 이해

- ㉕ 이 시는 **지배적 힘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
- ㉖ 심청은 **지배적 힘(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물이며, 이 시는 심청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다.**
- ㉗ 심청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보여주기도 한다.(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삶의 질서)

<감상 Point>

★인당수 : 화자가 빠지지 않으려는 곳.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기도 하다.

→<보기> 고려 시, 심청과 같이 지배적 이념(전통적 가치관)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인물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비, 새 :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 누에고치를 벗어 던지고, 알 껍질을 깨고 나와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

→<보기> 고려 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음.

★외국어 : <보기>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빗댄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음. 각자가 외국어를 배워야 외국어를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독립적으로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보기> 고려 시, ‘어머니’와 ‘자식’의 평등성까지 나아가볼 수 있는 소재. 다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이 미약한 면이 있다. 그렇기에, 평등성까지 나아가기보단, 독립성에서 멈추는 것이 맞다.

★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청자(=어머니)가 있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가 전개된다.

★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저는 ~ 습니다.”)

김소월, <님의 노래> (수능특강 문학편, p.74)

<보 기>

김소월과 한용운은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인 모두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19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내었다.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이며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된다면, 한용운의 작품에서는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한용운은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임을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다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

그러다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김소월, <님의 노래> (수능특강 문학편, p.74)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다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 화자는 ‘님’이라는 대상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님의 노래는 ‘맑다.’ 이런 님의 노래가 언제나 화자의 ‘가슴에 젖어 있’다는 말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님의 노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만침이나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원한다고 볼 수 있다.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 화자는 ‘님의 노래’를 문밖에 서서 듣고 있다. 화자는 문밖에 있고, 님은 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와 님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화자는 다시 님의 노래를 ‘곱다’라고 말하고 있다. 님의 노래는 맑으며 고운 노래다. 그렇기에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린다.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린다. 화자는 시간이 지나도, 문밖에 서서 ‘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며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만침이나 화자는 ‘님의 노래’를 항상 듣고 있다는 뜻이다. 1연에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있어요”라는 행과 연결해 봐도 좋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 “님의 노래”는 곱게 흔들리는 노랫가락이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다. 노래라는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님의 노래”로 인해, 화자는 외로워도(=“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아주 외로운 상태(=님의 부재)라는 걸 알 수 있다. 님의 노래는 이렇게 외로운 화자가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속성도 가진다. 또한, 화자는 “님의 노래”를 떠올리며 포스근한 잠에 들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잠에 드는 순간에도 “님의 노래”를 떠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다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하지만 화자는 “님의 노래”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님의 노래”는 화자에게 계속 들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젖어있는 존재지만, 화자는 “님의 노래”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왜?

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자다 깨면”이라는 부분에 집중해볼 수 있다. 즉, “님의 노래”는 잠과 꿈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님의 노래”가 현실에서는 기억될 수 없다는 걸 통해, “님”과 화자의 거리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화자에게 있어서 “님”은 정말로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존재다.

<보 기>

김소월과 한용운은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인 모두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19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내었다.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이며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된다면, 한용운의 작품에서는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한용운은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임을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이해

㉓ 이 시는 전통적 시가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㉔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㉕ 이 시에서는 화자의 정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화자는 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감상 Point>

- ★ 7·5조의 형식이다. 3음보의 울격을 지닌다. 다음과 같다.
(그리운 + 우리님의/맑은 노래는)
(언제나 + 제 가슴에/젖어 있어요)
- ★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용운, <수(繡)의 비밀> (수능특강 문학편, p.74)

→

<보 기>

김소월과 한용운은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인 모두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19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내었다.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이며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된다면, 한용운의 작품에서는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한용운은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임을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익(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익 :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익(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繡)의 비밀> (수능특강 문학편, p.74)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익(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익 :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심익(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 화자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다. 심익, 도포, 자리옷까지 다 지었지만, “작은 주머니에 수”를 놓지는 않은 상태다. 아직 “당신의 옷”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 “주머니”를 계속 만지작거렸다는 뜻일 거다. 그렇다면 왜 화자는 “주머니”를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했을까. 왜 첫 연에서 말한 것처럼, 작은 주머니를 수놓지는 않았을까?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 “주머니”의 수를 놓으면 옷이 완성되지만, 아직 주머니의 수를 놓지 않고, 짓다가 놓고, 짓다가 놓는다. 계속 수놓기를 하려는 걸 보면 옷을 완성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왜 계속 놓아두는 것일까? 무엇이 화자로 하여금 수놓기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 사람들은 화자가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안다고 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보자면, 화자가 자꾸 옷을 짓다가 놓아두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옷을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화자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바느질 솜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비밀”은 화자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 비밀”이 뭔지 조금 생각해보자면, 화자의 바느질 솜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왜 화자가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지에 대한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 화자가 왜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화자는 마음이 아플 때, 즉 부정적 상황에 놓일 때마다 주머니에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주머니에 수를 다 놓게 되고, 옷을 완성해버리면?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옷을 완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 한 가지 이유를 더 제시한다. “그 주머니에는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아직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화자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짓는 옷의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는 세상이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화자가 왜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가를 말해준다.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머니에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 주머니에 수를 다 놓는다 한들, 그곳에 넣을만한 보물이 없기 때문에 화자는 주머니에 수를 다 놓지 않는다. 옷은 계속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이 마지막 연에 와서, 화자의 이런 행위는 옷을 짓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게 된다. 화자는 다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가 없을 때에 옷을 완성할 것이며,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옷을 완성할 것이다. 즉, 화자가 옷을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는 그런 시대와 세상을 기다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보 기>

김소월과 한용운은 전통적 시가 양식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인 모두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19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내었다.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서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아픔을 안으로 삭이며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된다면, 한용운의 작품에서는 재회의 당위성에 기대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김소월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한용운은 당위의 현실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임을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이해

㉓ 이 시는 전통적 시가의 소재인 ‘임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설움과 아픔’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㉔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㉕ 이 시에서는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화자와 임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감상 Point>

★ 마지막 연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박목월, <윤사월> (수능특강 문학편, p.76)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 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엮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

윤사월 해 길 다
피꼬리 울면
→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엮듣고 있다
→

박목월, <운사월> (수능특강 문학편, p.76)

송홑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운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 박목월, 「운사월」 -

송홑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 시적 배경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송홑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런데 엄청 어려울 것이다.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보자. “외딴 봉우리”만 떠올려 봐도 된다.

여기에서, “송홑가루”와 시의 제목인 “운사월”을 조합해보면 계절적인 배경을 알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학생들 입장에선 아주 어렵다. 이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 분명히 “운사월”은 어떤 시기인지를 밝혀줄 것이며, “송홑가루”라는 것이 봄이라는 계절성을 드러내는 소재라는 걸 <보기>를 통해서든, 선지를 통해서든 알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운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 “운사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된다. 그런데 “운사월”이 시간적 배경인 것을 알아채는 것은 역시나 학생들에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낸다면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줄 것이다.

그냥 문자만 받아들이자면, “운사월”은 해가 긴 날이다. 해가 오래 뜬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운사월”의 낮이라는 시간적 배경, “송홑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피꼬리”가 운다. 이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 갑자기 “산지기 외딴집”이 등장한다. “외딴집”이라는 표현을 봐선, “외딴집”과 1연의 “송홑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곳에는 “눈먼 처녀”가 있다. “외딴 봉우리”에서는 “피꼬리”가 우는 것과 대비된다고도 볼 수 있다.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 3연에 등장했던 “외딴집”의 “눈먼 처녀”는 “문설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 무엇을 엿듣는 걸까? 앞 연에서 찾자면 “외딴 봉우리”의 “피꼬리” 울음소리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엿들을까? 이것도 시 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더 읽어보기>를 통해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더 읽어보기>

이 시를 본다면, “이게 뭘 소리야??”하는 생각만 들 것이다. 당연하다. 시간적 배경이라고는 “운사월”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을 제시하질 않나, “송홑가루”를 통해서 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외딴 봉우리”나 “외딴집”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각화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시각화를 시도하면 쉽지 않다. 그래도 별 수 없다. 해야 한다...억지로라도 시각화를 해본다면, 두 공간은 서로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딴 봉우리”는 “송홑가루”가 날리고 “피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하지만 “산지기 외딴집”에는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 “눈먼 처녀”는 “피꼬리”의 울음 소리를 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만 할 뿐이다.

여기까지를 시각화하는 데에 성공했다면, “외딴 봉우리”는 “송홑가루”, “피꼬리”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산지기 외딴집”은 “눈먼 처녀”가 수동적으로 바깥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눈먼 처녀”는 “피꼬리”를 직접 볼 수도 없고, “외딴 봉우리”를 마주할 수도 없다.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외딴집”과 “외딴 봉우리”사이의 거리감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눈먼 처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에 기대어서 소리만 들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외딴집”의 폐쇄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렇게, “외딴집”과 “외딴 봉우리”는 각각 “폐쇄적 공간”이라는 특성과 “자연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은 서로 대비되면서, “눈먼 처녀”가 “외딴 봉우리”의 생명력에 대해 갖는 감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눈먼 처녀”는 “외딴 봉우리”의 생명력을 “피꼬리”를 통해 들으며, 그곳에 대한 소망, 동경심을 지녔다는 것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 내용들을 시만 읽어서 알 수 있나? 없다.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 내용들로 문제를 내려면 <보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정말로, 엄청난 <보기>가 될 것이다.

<감상 Point>

- ★ 절제된 감정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 7·5조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정형적인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윤동주, <자화상> (수능특강 문학편, p.76)

<보 기>

윤동주에게 시 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고,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지닌 지식인이면서도,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 이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 윤동주, 「자화상」 -

윤동주, <자화상> (수능특강 문학편, p.76)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들여다본다. 화자가 있는 우물은 “외딴 우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화자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화자가 본 “우물 속”에는 “달”, “구름”, “하늘”이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리고 “바람”과 “가을”이 있는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파아란 바람”이다. 왜 “파아란 바람”이라고 했을까? “바람”이라는 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다. 여기에선 “바람”에 “파아란” 색상을 입혀서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이 연에서는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주고 있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화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따라 그려보자. 밝은 달이 떠있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아란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2연에서 가을의 풍경을 꼭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나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물 속에는 “가을”의 풍경 속에 “사나이”도 함께 있다. 여기서 “사나이”라는 건, 화자다. 절대 다른 사람일 수가 없다. 애초에 1연에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이 우물을 들여다보는 화자 자신도 우물 속의 물에 비친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밍단다. 미워서 우물 보기를 그만두고 돌아갈 지경이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돌아가는 길에 화자는 갑자기 “그 사나이”를 가엾게 느낀다. 자기 자신이 다시 가엾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우물로 돌아가기로 한

다. “그 사나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물을 다시 홀로 들여다보는 것이니, “사나이”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막상 우물을 들여다보니 사나이가 또 미워진단다. 그래서 돌아간다. 돌아가다가 이번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화자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면 무슨 행동을 해야겠는가. 다시 보러 가야지. 화자는 “그 사나이”를 보러 다시 우물로 돌아갈 것이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다시 우물로 돌아온 화자는 우물 속을 들여다본다. 여기에는 2연에서 말했듯이, 가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화자는 처음엔 사나이를 미워했다. 그리고는 불쌍하다고 느꼈다. 그리고는 다시 미워했다. 그리고는 그리워했다. 마지막 연에서 “사나이”는 끝내, “추억처럼” 존재하게 된다. 어째서 “추억처럼”일까? 이걸 혼자서 생각해보기엔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저 화자가 “사나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물론, 여기에서 “사나이”는 “화자 자신”이다.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보 기>

윤동주에게 시 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고,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지닌 지식인이면서도,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 이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보기 이해

㉓ 시인은 일제 강점기라는 부조리한 시대에 살았음.

㉔ 시인은 부조리한 시대 상황에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식인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음.

㉕ 이에 대해 시인은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을 이 시에 담았음.

<감상 Point>

★ 외딴 우물 :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곳에 “홀로” 찾아간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는 “홀로”해야 하는 것임을, 화자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계절적 배경 :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두고 있다.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화자의 성찰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성찰”이라는 행위가 “홀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 사나이 : 화자는 “사나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뀐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화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점을 생각해 두자.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栢)같이> (수능특강 문학편, 78p)

<보 기>

(가)와 (나)는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객지에서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 속에서 술한 명작을 남긴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들을 떠올린다. 화자는 그들이 느꼈을 삶의 고독을 떠올리고, 그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栢)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역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 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 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뽐뽐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栢)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역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 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 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뽐뽐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栢)같이> (수능특강 문학편, 78p)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栢)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 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 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뽀뽀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 * 억병 : 매우 많이
- * 반관 : 작은 중국 식당
- * 원소 :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 * 느꾸어 :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의 평북 방언.
- * 오독독이 : 오독도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떨어진다.
- * 호궁 : 중국의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하다.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정월 보름”의 명절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다.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 하지만 화자는 고향이 아닌, “남의 나라”에 “쓸쓸한 객고”에 있다. “객

고”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栢)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화자가 있는 “남의 나라”다. 화자는 “두보”나 “이백”같은 “남의 나라”의 옛 시인들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정월 보름”같은 명절을 “타관”에서 보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자가 명절을 “남의 나라”에서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 화자가 명절에 고향의 집에 가면 했을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 화자는 고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옷”과 “새 신” 대신, “때 묻은 입든 옷”을 입고 있고, “떡과 고기도 억병”먹는 대신,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식사한다. 그리고는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내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 다시, “두보”와 “이백” 같은 시인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화자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 화자는 “조그마한 가업집”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떡국” 한 그릇을 사 먹을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서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 “가업집”은 화자와 같은 고향의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다. 화자가 “남의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명절에 “떡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마한 가업집”인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남의 나라”에서도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조그마한 가업집”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 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 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 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보름 명절날 “떡국”한 그릇을 먹는 것을 뜻한다.
화자는 이런 풍습을 두고, “두보나 이백”같은 시인들도 타지에 있을 때, 자기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원소”를 먹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화자가 “남의 나라”에서 “조그마한 가업집”에 들어가 “떡

국"을 먹는 것처럼, 이들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보나 이백"도 화자 자신처럼 마음을 달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두보나 이백"을 뜻한다. 이들이 대보름 명절에 "원소"라는 것을 먹었듯이, 그들의 후손들도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화자는 생각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고 아득히 슬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화자에게도 똑같이 다가온다. 화자가 지금 "타관에 나서도" 떡국을 먹는 것처럼, 화자의 "훗자손"들도 그럴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 "아득하니 슬플" 것이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뽕뽕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정월 대보름 명절에는 폭죽이 터지고, 악기 소리가 난다. 하지만, 화자는 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쓸쓸한 마음만이 가득하다. 다시 한 번, 화자는 "두보나 이백"도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곤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시인들이(=두보나 이백이) 그러했을 것처럼, 화자 자신도 것처럼 쓸쓸한 마음을 가졌단 것을 다시 말해주는 부분이다.

<보 기>

(가)와 (나)는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객지에서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 속에서 술한 명작을 남긴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들을 떠올린다. 화자는 그들이 느꼈을 삶의 고독을 떠올리고, 그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가)다.

→ 보기 이해

㉠ 이 시는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화자는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수능특강 문학편, 79p)

<보 기>

(가)와 (나)는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객지에서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 속에서 술한 명작을 남긴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들을 떠올린다. 화자는 그들이 느꼈을 삶의 고독을 떠올리고, 그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등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등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수능특강 문학편, 79p)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등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 화자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다. “무덤에 잠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자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 있는 “선산 뒤”에, 화자의 어머니는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고 말한다. 이 “큰 여백”은 화자의 어머니가 남긴 “말씀보다” 크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큰 여백”을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빈 자리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 화자는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그 여백 아래”에 앉는다. 석양 무렵에 동산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큰 여백”을 떠올린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화자가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은 “방생의 시냇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긴 힘들 것이다. 더 자세히 파고들어보자.
화자는 “여백 아래” 앉는 행위(=정확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백을 생각

하는 행위일 것이다.)를 하면, “잔소리”들은 시냇물 따라 흘러간다. 이것에서 “잔소리”는 “여백 아래 앉는 행위”를 통해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하! 그러면 “잔소리”는 부정적인 요소이며, 화자가 “여백 아래 앉는 행위”는 “잔소리”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잊을 수 있는, 일종의 치유를 위한 행위가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 “여백 아래” 앉는 행위는 “더 큰 여백”을 가져다준다.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 행에서 말한 “잔소리들”일 것이다. 이런 “잔소리들”도 사라지면서 더 큰 여백을 불러일으킨다. 마침, 뒤에서 부는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고, 멧새는 날아간다. 그렇다면 그 날아간 빈 공간. 멧새는 또 다른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다. 화자의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큰 여백”을 남기셨다. 화자는 이런 여백을 통해 “잔소리”를 바다로 흘러보낼 수 있었다. 바다로 흘러간 “잔소리”는 또 “다시 더 큰 여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등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 이제 우리는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말한 “어머니”, “잔소리”, “멧새” 모두 사라지면서 여백을 일으킨다.

“어머니”는 “무덤에 잠드신” 부재의 상황이며, “잔소리”는 바다로 흘러가는 부재의 상황이며, “멧새”는 팽팽한 바람에 막막궁산 오솔길로 날아간 부재의 상황이다. 이런 부재의 상황들은 항상 “여백”을 일으켰고,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는 “여백”이 되는 것이다.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 “여백”과 “쓸쓸함”을 연결짓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여백을 만든다. 화자는 이런 여백을 “쓸쓸함”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쓸쓸함”도 여백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더 나아가서, “여백”을 “탄생”과 연결한다. 어째서? 앞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어머니의 여백이 잔소리의 여백을 만든 것처럼, 어떤 것의 여백은 또 다른 여백의 탄생을 불러일으킨다. 화자는 이처럼, “부재”의 상황을 “부재”와 “쓸쓸함” 자체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재”의 상황은 “여백”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는, 탄생의 토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인식 전환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화자는 이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한다. “너”라고 설정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화자는 자신도 언젠가 “부재”의 상황으로 남을 것임을 아

는 것이다.
물론, 화자는 자신이 새롭게 인식한 “여백”의 의미를 이곳에서 다시 말하고 있다. 앞에서 화자가 겪었던 “여백”처럼, 화자의 어머니가 만든 “큰 여백”이 화자에게 “잔소리”를 잊게 해주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 화자 자신의 부재도 타인에게 “여백”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 기>

(가)와 (나)는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객지에서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 속에서 술한 명작을 남긴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들을 떠올린다. 화자는 그들이 느꼈을 삶의 고독을 떠올리고, 그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나)다.

→ 보기 이해

- ㉓ 이 시는 쓸쓸함(=여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 ㉔ 화자는 쓸쓸함을 여백과 연결시켜, 타인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고 인식하고 있다.(=인식의 전환이 드러남)
- ㉕ 더 나아가서,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타인에게도 “여백”으로 남고 싶은, 화자의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육사, <꽃> (수능특강 문학편, 82p)

<보 기>

(가)와 (나)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더욱 부각된다.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임을 역설적 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갈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갈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수능특강 문학편, 82p)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화자가 “동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동방”이라는 곳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동방”이라는 곳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필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이라는 존재는,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나리잖”아도 필 수 있다는 것이다. “꽃”이라는 게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화자는 이를 두고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라고 말한다. 여기서 “꾸며”는 “꿈꾸며”의 뜻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화자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쉬지 않고 꿈꾸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이곳에서 “꽃”은 화자의 희망/소망이 된다. 그것도 “목숨”과 결부지어 말할. 아주 소중한 희망이 된다.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 또 다시, 부정적인 상황이 등장한다. 1연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하다. 부정적인 상황인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희망으로 “꽃맹아리”가 등장한다. “꽃맹아리”는 1연의 “꽃”과 같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움작거”릴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2연에서는 다른 대상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이 바로 그것이다. “제비 떼”가 날아오는 것은 봄이다.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설정했으니, 여기에서 “제비 떼”가 상징하는 봄은, 앞으로 찾아올 희망적인 미래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화자는 이런 미래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영탄적 어조를 통해 강력하게 말한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 물러가고, 희망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은 1연의 “꽃”과 2연의 “꽃맹아리”와 연결된다. 이 연에서 “꽃”은 “성(城)”을 이룰 정도로 넘쳐나게 된다. 희망을 뜻하던 꽃이 그렇게나 많다면, “꽃 성(城)”이란, 희망이 이루어진 혹은 가득 찬, 그런 공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은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명확히 잡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꽃 성(城)”이 그만큼이나 역동적으로 기쁜 공간일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다.

화자는 이런 “꽃 성(城)”에 존재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을 부른다고 한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희망이 이루어진 공간, 즉 “꽃 성(城)”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 존재들은 간절히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진 기쁨을 “나비처럼 취하”며, 누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들을 “불러” 보면서, “꽃 성(城)”에 대한 기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 기>

(가)와 (나)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더욱 부각된다.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임을 역설적 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가)다.

→ 보기 이해

㉠ 이 시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또한,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 <보기>는 이렇게 희망을 찾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원 말인지 모를 것이다. 나도 그렇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

<감상 Point>

★ 이해하기 힘든 행들 : 이 작품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행이 둘 존재한다. 하나는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이며, 다른 하나는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이다. 이에 대해 따로 설명해보겠다.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라는 부분이 말하는 것은, 부정적 상황 하에서 피어날 “꽃”을 계속 꿈꾸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목숨마저 꿈을 꾸며 보낸다는 것이니, 화자가 이 희망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이라는 행을 살펴보자. 이 말은 “꽃 성”과 연결하는 것이 맞다.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이라는 행은 “꽃 성”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주는 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뭐가 용솟음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냥 “희망이 이루어져 기쁨이 용솟음친다”라고만 알아두면 된다.

★ 부정적인 상황들 :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아보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씨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

“눈 속”

★ 희망의 상징 : 화자가 희망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아보자.

“꽃은 발강게 피지 않는가”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수능특강 문학편, 82p)

<보 기>

(가)와 (나)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더욱 부각된다.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임을 역설적 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묵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묵였으면
→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수능특강 문학편, 82p)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 화자는 “못 잊을 사람”과 “한계령쯤을 넘다가/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한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한계령”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잡아낼 수 있다.

“뉴스”는 “폭설”에 대해 “수십 년 만의 풍요”라고 알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냥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폭설”인데 이를 두고 “뉴스는” 왜 “풍요”로 알리는 것인지 아직은 잘 알기 어렵다. 또한, “폭설”로 인해,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이라고도 말한다. 화자는 “뉴스”와 “자동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계령에 내리는 “폭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뉴스나 자동차와는 다르다. 화자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이라며 소망하고 있다. 왜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걸까?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 1연의 마지막에서 화자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이라는 소망을 보였다. 화자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화자에게 “고립”은 그냥 고립이 아닌, “눈부신 고립”이다. 그리고 화자에게 “폭설”은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다. 화자는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을 이런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운명이 묶였으면”이라는 소망을 보이는 것이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이라는 말을 통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는 “폭설”일 것이다. 뉴스는 “폭설”을 “풍요”라고 알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라고 알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도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다시금 자신의 소망을 강조한다. 이런 폭설에 묶이기를 오히려 원하고 있는 화자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라고 말한다. “헬리콥터”는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에서 화자를 구출해줄 수도 있는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구출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헬리콥터”가 구출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헬리콥터”에 대해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리는 존재로 설정한다. 짐승들에게 이 헬리콥터는 틀림없는 구원의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헬리콥터를 거부한다.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 “헬리콥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타난다. “헬리콥터”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존재다. 하지만 지금은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리는” 존재일 뿐이다. 이를 통해 “헬리콥터”의 “구출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화자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화자는 절대로 구출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에 갇히길 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화자에게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은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리고 “기꺼이 묶여”있고 싶은 공간이다. 더 나아가, 화자는 이를 두고 “축복”이라고 말한다. “난생 처음” 겪을, “짧은 축복”이다. 이처럼, 화자에게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은 재난의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상황인 것이다.

<보 기>

(가)와 (나)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 더욱 부각된다. (가)는 극한의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현재 안에 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임을 역설적 인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나)다.

→ 보기 이해

- ㉠ 이 시는 한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선 “폭설”이 내리는 “한계령”이다.
- ㉡ 또한, 극한의 한계 상황을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라는, “역설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보기>는 이렇게 극한의 한계 상황을 기쁨과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원 말인지 모를 것이다. 나도 그렇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

<감상 Point>

- ★ 뉴스, 자동차, 현실, 야생 동물들 :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계령의 폭설이라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등장하는 대상이다. 이들에게 한계령의 폭설은 “뒤뚱거리며/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인 상황이며, “공포”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며, 야생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헬리콥터라는 존재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 ★ 헬리콥터 : 이 시에서는 “헬리콥터”라는 대상의 두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폭설에 갇힌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뿌리는 자비로운 면모고, 다른 하나는 젊은 심장을 향해 포탄을 뿌리는 면모다. 이 두 모습을 모두 이야기하고, 여기에서의 헬리콥터는 “자비로운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헬리콥터가 구원/구출과 관련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빗난 이마받이* 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우수절(雨水節):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이마받이: 이마를 부딪치는 것
* 옹송거리고: 몸을 움츠러들이고
* 햇옷: 솜을 두어 지은 옷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가지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늪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려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뒤편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짹짹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주락하여: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북: 베들에서 날질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연류간(煙柳間):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3.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문을 여니 갑자기 먼 산에 눈 내린 것이 보인다.	- ①	·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때는 이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②	·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그리고 보니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	- ③	·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
↓		
봄을 맞아 생명이 생동하는 것이 느껴진다.	- ④	·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춘절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진다.	- ⑤	·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 어라

4.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는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7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뚫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자연물의 의인화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나)는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화자의 고조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39년에 발표된 (가)는 계절의 경계에서 겪는 꽃샘추위가 소재이다. 계절적 상황으로 인해 화자는 한편으로 긴장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사물의 생명력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신체의 지각을 통해 포착된 사물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동원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물론, 멀리 떨어진 대상조차 마치 몸으로 직접 접촉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는 주로 산을 시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그곳의 풍경과 감흥, 이로 인한 정신적 위안을 작품에 담아내는 경향이 있었다.

- ① ‘먼 산’을 바라보며 ‘선뜻!’, ‘이마에 차라.’라고 표현한 것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듯한 화자의 느낌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먼 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낀 후에 ‘웅숭거리고 살아난’ 봄의 풍경을 보고 낮이 설다고 표현한 것에서, 봄을 맞이하여 화자가 느끼는 경이감을 엿볼 수 있군.
- ③ ‘눈이 덮인 멧부리’를 대하여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감각한 사물을 촉각과 시각이 결합된 복합 심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흰 옷고름’을 ‘향기로워라.’라고 표현한 것에서, 봄의 계절적 변화를 화자 자신의 몸을 통해 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파릇한 새순’과 오물거리는 ‘고기 입’의 대립을 활용한 것에서, 정신적 위안과 긴장이 공존하는 계절적 상황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은 (나) 시의 창작에 영감을 준 작품인 샤갈의 「나와 마을」이다.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샤갈의 이 그림은 좌측에 동물, 우측에 초록 얼굴의 사내를 놓는 등 다양한 모티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그림 위쪽은 소년과 마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작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그림 아래쪽은 눈이 내리는 현재의 풍경을 표현한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한편 이 그림은 붉은색과 녹색, 보라색과 노란색 등 보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아늑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고 있다.



- ① 삼월에 눈이 내리면서 펼쳐지는 (나)의 환상적인 풍경은, [그림]의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마을’과 ‘눈’, ‘사나이’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나열하는 (나)의 시상 전개 방식은, [그림]의 병렬적인 모티프 제시 방식을 차용한 것이겠군.
- ③ ‘올리브 빛’의 녹색과 ‘아름다운 불’의 붉은색을 대비시킨 (나)의 색채 심상은, [그림]에 나타난 아늑하고 활기찬 느낌을 살려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군.
- ④ (나)에서 ‘정맥’이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시선의 초점을 맞춘 것은, [그림]에서 ‘초록 얼굴의 사내’가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삼월’과 ‘겨울 열매’를 결합하여 계절의 상황을 나타낸 것은, [그림]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함께 재현한 것의 영향을 받아 화자의 유년 시절을 부각하려는 의도이군.

Day 1

1	②	2	②	3	③	4	④		
5	④	6	③	7	①	8	⑤	9	⑤

[1 ~ 6] 작품 Comment

<2011학년도 교육청 현대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나)는 ‘새는 ~다’의 통사구조를 반복했지만, (가)는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 감각적 이미지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뜻한다. (가)와 (다)는 시각, 청각, 후각적 이미지가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그 속성을 묘사하고 있을 뿐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고, (다)는 시간적 배경이 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나)는 하나의 대상을 묘사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화자가 직접 장소를 이동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선경후정은 경치를 먼저 감상한 후 뒤에 감상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나)와 (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2.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 (가)와 (다) 모두 화자의 삶이 투영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회상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 (가)의 화자는 갑자기 내린 춘설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각종 자연물을 완상하며 봄날의 흥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물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어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 (가)와 (다) 모두 화자가 자연을 본받으려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 (가)와 (다) 모두 이상적 삶의 실현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 (가)와 (다) 모두 현실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나오지 않았다.

3.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문을 여니 갑자기 먼 산에 눈 내린 것이 보인다.	- ①	·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	----------------------------

☞ ‘문을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을 통해 문을 열어 보니 먼 산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는 이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②	·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	-----------------------

☞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	- ③	·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
-------------------------	-----	----------------

☞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는 춘절을 보고 느낀 감각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다.

봄을 맞아 생명이 생동하는 것이 느껴진다.	- ④	·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	--

☞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 오물거리는’에서 봄을 맞아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춘절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진다.	- ⑤	·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 어라
------------------------	-----	-----------------------

☞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서 따뜻한 옷을 벗고 춘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다.

4.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 ‘않는다’, ‘없다’ 등의 부정적인 서술어를 사용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했다.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 전반부에는 새의 외면을 응시하여 새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서술하다가, 후반부에 새의 내면을 응시하여 ‘내일’을 ‘깨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가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 시의 제목은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실마리이다.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자취’, ‘체중’, ‘자리’, ‘체취’가 점층적인 관계도 아니다.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 ☞ 화자가 새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화자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에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해설] '군자를 대하온 듯'에서 '한죽'(대나무)을 군자로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해설] ㉡는 세로로 길게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꺾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베틀에서 실 사이로 복이 오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 ③ ㉢은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은 자연의 맑은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다는 표현으로 대상, 즉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낸다.
- ④ ㉣은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해설] ㉣은 흥겨운 심정을 감정이입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을 묘사하는 관습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⑤ ㉤은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해설] ㉤은 자신을 신선이라고 묘사하여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6.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해설]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 ㉠은 엄숙한 작품 분위기의 조성과는 상관 없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해설] ㉠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상적 의미의 바람이고, ㉣은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등 새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쓰였으므로 상징적 의미의 바람이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해설] ㉠은 화자와 대립하는 대상이 아니고, ㉣과 화자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이 심리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7 ~ 9] 작품 Comment

<2019 수능특강 현대시>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해설] (가)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고, (나)는 '바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사나이의 정맥이 떨리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자연물의 의인화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가)는 자연물의 의인화가 쓰이지 않았고, 대상에 대한 연민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 ③ (가)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나)는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가)는 어순의 도치를 사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영탄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이나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화자의 고조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해설] (가)와 (나)는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사용되지 않았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산'을 바라보며 '선뜻!', '이마에 차라.'라고 표현한 것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듯한 화자의 느낌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해설] 화자는 문을 열자마자 '먼 산'의 눈 덮인 모습을 보게 되어 갑작스럽게 놀란 감정을 '선뜻!'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이마에 차라.'를 통해 눈 내린 산의 차가움이 직접 이마에 닿은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먼 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낀 후에 '웅숭거리고 살아난' 봄의 풍경을 보고 '낮이 설다'고 표현한 것에서, 봄을 맞이하여 화자가 느끼는 경이감을 엿볼 수 있군.
 [해설] '웅숭거리다'는 '춡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웅그리다.'라는 뜻이다. '설어라'는 '낮이 설다'와 '저럽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화자가 멀리 눈 덮인 산에서 봄이 오는 것을 느낀 후에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을 '낮설다'고 느낀 것으로 보면, 그 이유는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생명력을 지닌 봄이 오는 것에 대해 놀랍고 신기한 느낌, 즉 경이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눈이 덮인 멧부리’를 대하여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감각한 사물을 촉각과 시각이 결합된 복합 심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화자는 ‘눈이 덮인 멧부리’라는 사물을 접하고 ‘서늘옅고’, ‘이마받이하다’라는 촉각적 심상, ‘빛난’이라는 시각적 심상 등 복합 심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계절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④ ‘흰 옷고름’을 ‘향기로워라.’라고 표현한 것에서, 봄의 계절적 변화를 화자 자신의 몸을 통해 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흰 옷고름이 날리는 모습을 후각적 심상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봄을 화자 자신의 감각을 통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파릇한 새순’과 오물거리는 ‘고기 입’의 대립을 활용한 것에서, 정신적 위안과 긴장이 공존하는 계절적 상황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파릇한 새순’이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것은 모두 겨울에 움츠렸던 사물이 봄을 맞아 생동감을 띠게 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 대립적인 소재라고 할 수 없다

④ (나)에서 ‘정맥’이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시선의 초점을 맞춘 것은, [그림]에서 ‘초록 얼굴의 사내’가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겠군.

☞ (나)는 [그림]의 우측에서 ‘초록 얼굴의 사내’가 큰 비중으로 그려진 것, 즉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 ‘정맥’이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나)에서 ‘삼월’과 ‘겨울 열매’를 결합하여 계절의 상황을 나타낸 것은, [그림]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함께 재현한 것의 영향을 받아 화자의 유년 시절을 부각하려는 의도이군.

☞ (나)에서 ‘겨울 열매’는 ‘삼월에 눈’이 올 때 ‘올리브 빛’으로 물들어 소생하는 모습, 즉 봄의 생명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나)에는 화자의 유년 시절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화자의 유년 시절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월에 눈이 내리면서 펼쳐지는 (나)의 환상적인 풍경은, [그림]의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나)에는 삼월에 눈이 내리면서 ‘사나이’의 ‘정맥’,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눈’, ‘겨울 열매’의 색깔 변화, ‘아름다운 불’ 등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이는 [그림]의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마을’과 ‘눈’, ‘사나이’ 등 다양한 이미지를 나열하는 (나)의 시상 전개 방식은, [그림]의 병렬적인 모티프 제시 방식을 차용한 것이겠군.

☞ (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병렬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그림]의 병렬적인 모티프 제시 방식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올리브 빛’의 녹색과 ‘아름다운 불’의 붉은색을 대비시킨 (나)의 색채 심상은, [그림]에 나타난 아늑하고 활기찬 느낌을 살려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군.

☞ (나)의 ‘올리브 빛’의 녹색과 ‘아름다운 불’의 붉은색은 보색의 대비를 통해 [그림]에 나타난 아늑하고 활기찬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10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익*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익: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D]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E]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F]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G]

- 문정희, 「찔레」-

1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11.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
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
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
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
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
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12.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Day 2

10	④	11	③	12	⑤						
----	---	----	---	----	---	--	--	--	--	--	--

[14~16] 작품 Comment

<2018학년도 교육청 현대시>

1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 있으나, (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고'에서,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11.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보기>의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한다.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2.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A]의 '그리운 가슴'은 '그리운'이란 말에서 과거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D]의 '꿈결'은 앞의 '오늘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D]에서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알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환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A]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올면

산지기 외딴집
눈 먼 처녀사

[B]

문설주에 귀 대이고
옛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

(나)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
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
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
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13.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성찰적 어조를 통해 시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시적 정조(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윤사월」에서 ‘외딴 봉우리’는 ‘송환가루’와 ‘피꼬리’를 통
해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외딴 집’은 외부
와 고립되어, 느낄 수 있는 감각마저도 제한되는 공간으로 제
시된다. 이 작품은 상반되는 두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도 드러낸다.

- ① [A]의 ‘송환가루’와 ‘피꼬리’는 모두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
군.
- ② [A]에서는 ‘윤사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자연의 아름다
움을 부각시키고 있군.
- ③ [A]의 ‘피꼬리’는 [B]의 ‘눈 먼 처녀’의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에
존재하며, ‘피꼬리’는 제한된 감각으로만 ‘눈 먼 처녀’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겠군.
- ④ [B]의 ‘외딴’은 [A]의 ‘외딴’과 달리 공간의 고립된 성질을 드러내
고 있군.
- ⑤ [B]의 ‘옛듣고 있다’라는 행위를 통해 ‘눈 먼 처녀’가 [A]의 ‘외딴
봉우리’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짐작할 수 있겠군.

15.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화상」에서 화자를 비추는 것은 ‘우물 속의 물’이다.
‘우물’은 정지해 있지만,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대상들은
화자의 인식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유동
적인 상태이다. 또한, 그를 비추는 우물 속의 물 또한 유동
적이기에, 훼손되지 않은 절대적인 공간의 성격으로 남을
수는 없다.

- ①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돌아가는’ 행위의 반복은 우물
이 한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군.
- ② ‘사나이’에 대해 화자가 갖는 인식이 ‘가없어집니다.’, ‘미워져’, ‘그
리워집니다.’로 변화함에 따라 우물에 비치는 대상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겠군.
- ③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달’, ‘구름’, ‘하늘’, ‘바람’ 등의 환경은 정
지해 있는 ‘우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겠군.
- ④ ‘우물 속의 물’은 우물과 함께 정지해있기 때문에 ‘우물 속의 물’
에 비치는 대상 자체는 유동적이더라도 ‘우물 속 물’에 비친 모습
은 모두 절대적이겠군.
- ⑤ ‘우물 속의 물’은 유동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친 대상들
에 대한 화자의 감정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겠군.

[16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릅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 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화상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 ‘늦된 나무’가 피워 낸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Day 3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④	19	④		

[16~18] 작품 Comment

<자체제작문학 현대시>

13.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②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고, 계절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지 않았고, (나)는 색채어를 활용했지만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④ 성찰적 어조를 통해 시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나)는 성찰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만 (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시적 정조(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  (가), (나) 모두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시적 정조(情調), 즉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송화 가루’와 ‘피꼬리’는 모두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보기>를 통해 ‘송화가루’와 ‘피꼬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는 ‘윤사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군.
-  계절적 배경을 ‘윤사월’, 즉 봄으로 설정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의 ‘피꼬리’는 [B]의 ‘눈 먼 처녀’의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에 존재하며, ‘피꼬리’는 제한된 감각으로만 ‘눈 먼 처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군.
-  [A]의 ‘피꼬리’는 [B]의 ‘눈 먼 처녀’의 공간과 대비되는, 트여있는 공간에 존재한다. <보기>를 통해 감각이 제한되는 곳은 [B]의 ‘외딴 집’이므로 ‘피꼬리’의 감각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④ [B]의 ‘외딴’은 [A]의 ‘외딴’과 달리 공간의 고립된 성질을 드러내고 있군.
-  <보기>를 고려했을 때, [A]의 ‘외딴’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뜻이지만, [B]의 ‘외딴’은 외부와 고립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⑤ [B]의 ‘엳듣고 있다’라는 행위를 통해 ‘눈 먼 처녀’가 [A]의 ‘외딴 봉우리’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짐작할 수 있겠군.
-  고립된 공간에 있는 ‘눈 먼 처녀’가 엳듣는 행위를 통해 ‘외딴 집’의 바깥에 있는 ‘외딴 봉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15.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돌아가는’ 행위의 반복은 우물이 한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군.
-  <보기>에 따르면 우물이 한 자리에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② ‘사나이’에 대해 화자가 갖는 인식이 ‘가엾어집니다.’, ‘미워져’, ‘그리워집니다.’로 변화함에 따라 우물에 비치는 대상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겠군.
-  <보기>를 통해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대상들은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바뀌므로 우물에 비치는 대상들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달’, ‘구름’, ‘하늘’, ‘바람’ 등의 환경은 정지해 있는 ‘우물’과는 달리 언제든 변화할 수 있겠군.
-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자연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우물 속의 물’은 우물과 함께 정지해있기 때문에 ‘우물 속의 물’에 비치는 대상 자체는 유동적이더라도 ‘우물 속 물’에 비친 모습은 모두 절대적이겠군.
-  <보기>를 보면 ‘우물 속의 물’은 끊임없이 바뀌는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우물 속의 물’은 유동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친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감정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겠군.
-  ⑤ ‘우물 속의 물’은 유동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친 대상들의 모습도 끊임없이 바뀌고, 그것을 보는 화자의 감정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22] 작품 Comment

<2011학년도 대수능 현대시>

1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가)~(다) 모두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가)~(다) 모두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가)~(다) 모두 화자가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아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늙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  (가)~(다)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17.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A]와 [B] 모두 대조가 쓰이지 않았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B]는 유사한 구절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A]는 ‘짓어댄다’,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등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했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A]와 [B]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A]와 [B]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했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A]와 [B]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연에서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A]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제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B] 제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C] 제3연~제5연에서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없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D]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결국 우물 속에 투영한 자신의 모습, 곧 ‘자화상’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함축한다. 따라서 우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는 것은 곧 존재의 탐구에 해당한다. 제6연에서 언급한 ‘사나이’ 역시 ‘우물’ 속에 존재하는 화자의 모습이자 자화상이므로, 이것을 보고 존재 탐구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E]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제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화자는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A]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 ②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B]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느’이라고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 즉 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C] ‘난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D]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단풍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성과라도 얻기를 바라는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상사의 번잡함과 거리를 둔 관조의 공간이다.
- ② ㉡은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흐름을 담고 있는 변화의 공간이다.
- ③ ㉢은 우물에 비친 하늘 속, 즉 피안의 세계에 있는 존재이다.
- ④ ㉣은 시적 화자의 궁극적 지향이 과거를 향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나)

이튿날 아침 고단한 마련해선 일찌거니 눈이 떠진 것은 몸에 지닌 기쁨이 하도 컸던 탓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간밤에 볼 수 없었던 영봉들을 대면하려고 새댁같이 수줍은 생각으로 밖에 나섰으나, 계곡은 여태 짙은 안개 속에서, 준봉은 상기 깊은 구름 속에서 용이하게 자태를 엿보일 성싶지 않았고, 다만 가까운 데의 전나무·잣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쪽쪽 뻗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것이 눈에 띈 뿐이었다.

모두 근심 없이 자란 나무들이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문실문실 자란 나무들이었다. 꼬질꼬질 뒤틀어지고 외톨어지고 한 야산 나무밖에 보지 못한 눈에는 귀공자와 같이 기품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었다.

(중략)

장안사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끼고 돌며 몇 굽이의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과 물이 어울리는 지점에 조그마한 찻집이 있다.

다리도 쉴 겸, 스탬프북을 한 권 사서 옆에 구비된 기념인장을 찍으니, 그림과 함께 지면에 나타나는 세 글자가 명경대(明鏡臺)! 부양(俯仰)하여 천지에 참괴(慙愧) 없는 공명한 심정을 명경지수(明鏡止水)라고 이르나니, 명경대란 흐르는 물조차 머무르게 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면, 지니고 온 악심(惡心)을 여기서만은 정(淨)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는 곳이 바로 명경대란 말인가? 아무려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찻집을 나와 수십 보를 바위로 올라가니, 깊고 푸른 황천담(黃泉潭)을 발밑에 굽어보며 반공에 위연(威然)히 솟은 층암절벽이 우뚝 마주 선다. 명경대였다. 틀림없는 화장경(化粧鏡) 그대로였다. 옛날에 죄의 유무를 이 명경에 비추면, 그 밑에 흐르는 ㉧황천담에 죄의 영자(影子)*가 반영되었다고 길잡이는 말한다.

명경!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품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일까? 백 번 놀라도 유부족(猶不足)일 거울의 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가경(可驚)할 일인가?

신라조 최후의 왕자인 ㉡마의 태자는, 시방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바위 위에 꿰어 엮드려 명경대를 우러러보며 오랜 세월을 두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니, 태자도 당신의 업죄를 명경에 영조(映照)해 보시려는 뜻이었을까? 운상기품(雲上氣稟)에 무슨 죄가 있으랴마는 등극하실 몸에 마의(麻衣)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이미 불법이 말하는 전생의 연일는지 모른다.

- 정비석, 「산정무한(山情無限)」

*영자: 그림자.

21.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감각적 심상들을 동원하여 그려 낸 시적 공간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가)는 경어체 진술을 반복하여 운율미를 자아내면서 화자의 성찰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나)는 글쓰이가 등산 과정에서 마주친 자연물들의 외관과 그 인상을 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나)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여, 정신적인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글쓴이 자신과 일치하는 인물을 화자로 내세우고, (나)는 허구적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문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늬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
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
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늬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
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뽁뽁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
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
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끓어지고, 숯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
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
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
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
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
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
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
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
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
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
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
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23. (다)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24.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출고 힘겨웠던 기억을 모두 없앴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헛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늙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Day 4

20	①	21	⑤	22	①				
23	②	24	③	25	④				

[23] 작품 Comment

<2015학년도 인터넷수능 B형 현대시>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상사의 번잡함과 거리를 둔 관조의 공간이다.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곳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우물은 또 거울과 같이 무엇을 반사하여 돌아 보고 성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시 속의 외딴 우물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번잡함과 거리를 둔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
- ② ㉡은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흐름을 담고 있는 변화의 공간이다.
👉 우물 속에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있으나 이것은 가을 어느 날 우물에 비친 하늘과 자연이지, 자연의 순환이나 계절의 흐름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③ ㉢은 우물에 비친 하늘 속, 즉 피안의 세계에 있는 존재이다.
👉 우물 속의 사나이는 현실 속의 ‘나’의 반영이지 현실의 ‘나’와 만날 수 없는 피안의 세계에 있는 존재는 아니다.
- ④ ㉣은 시적 화자의 궁극적 지향이 과거를 향해 있음을 보여 준다.
👉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다 다시 그리워진다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그리움’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향해 있지만, 이 시의 궁극적 지향이 그리운 과거의 자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추억’을 비판적·부정적 어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우물에 비친 사나이는 과거에 잘 간직해 놓은 추억 속 자신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바람직한 ‘나’와 그렇지 못한 ‘나’로 분열되었던 자아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와 합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4] 작품 Comment

<2020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시>

21.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가)는 감각적 심상들을 활용하여 자아 성찰을 위한 공간을 그려냈다.
- ② (나): 화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문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가)는 ‘~다’의 경어체 진술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성찰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 ③ (다): 제기된 의문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나)는 수필로, 글쓰이가 등산 과정에서 겪고 느낀 일들이 순차적으로 쓰여 있다.
- ④ (라): 제기된 의문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나)는 역사적 인물인 ‘마의 태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마): 제기된 의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가)의 우물 속 ‘사나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 자신과 동일한 존재이자,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글쓰이 자신과 일치하는 화자의 경험과 성찰을 기록하고 있다.

[25 ~28] 작품 Comment

<2019학년도 교육청 현대시>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가)는 ‘대보름 명절’, ‘마른 물고기 한토막’ 등의 시구가 반복되었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이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로 변주되어 나타났다. (나)는 ‘고욤나무’, ‘그녀의 방’ 등의 시구가 반복되었고,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가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모두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가), (나) 모두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가)는 특정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 않고, (나)는 ‘눈보라’의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만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가)에만 ‘탕탕’, ‘뽕뽕’ 등의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었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 나)에만 ‘오후’, ‘것’의 명사형 시행 종결이 나타난다.

23. (다)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해설] ㉠은 화자가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 공간으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곳에 해당한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해설] ㉡은 화자가 상상해 본 장소일 뿐, 화자가 이곳에서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해설] ㉢은 축제가 한창인 곳으로 타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곳이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해설] ㉣은 '그녀'가 더 이상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화자에게 상실감을 유발하는 장소이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추위로 고통받았던 '그녀'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낀 연민이 만들어 낸 상상의 장소로 볼 수 있다.

24.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해설] 고향에서 '일가친척들과 보내던 '대보름 명절'을 '남의 나라'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타관에 있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강화한다.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해설] 화자는 과거에 고향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풍족하게 먹으며 명절을 보낸 기억이 있기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만 먹고 있는 현재 상황은 화자에게 심한 결핍감을 느끼게 한다.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해설]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낯선 타관에서 화자가 일시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길 소망하는 장소일 뿐,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해설] '떡국'은 화자에게 '마음을 느끼어 위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득하니 슬'프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해설] 화자는 '떡국'과 유사한 음식인 '원소'를 떠올리게 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 즉 타관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중국의 옛 시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없다', '홀로', '켁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해설] '없다', '홀로', '켁하다'는 그녀가 부재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정서를 환기시킨다.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늪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해설]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라는 대목에서 '~처럼'을 통해 그녀의 삶이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해설] 화자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이다. 불의 감각은 그녀가 이승에서 느꼈던 감각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는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고 있다.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해설] 화자는 그녀가 이승의 삶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기억을 모두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고 있다.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해설] <보기>를 통해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화자가 그녀의 부재로 인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나)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나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즈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 김광섭, 「마음」-

(다)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 같은 머리를 땀아 내린 사나이.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 돋운 포장 속에선
내 남성(男聲)이 십분 굴욕된다.

산 넘어 지나온 저 동리엔
㉣은반지를 사 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의 피였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편다.

[A]

- 노천명, 「남사당」-

2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 (다)는 회고적 어조로 과거에 대한 그리운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 (다)는 일반적 어순을 도치하여 시상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수화에서 여백은 단순히 서로 다른 자연물 사이의 빈 공간이 아니라 기실 물이거나 구름이거나 안개 등의 또 다른 사물의 공간이다. 즉, 비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채워진 공간인 것이다. 이는 큰 북을 치면 주위 공간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큰 북을 포함한 공명(共鳴)의 공간처럼 ‘무언(無言)’이면서도 ‘불언(不言)의 언(言)’이 되는 역설의 미학이다.

- 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가 시냇물 따라 흘러가서 ‘쟁쟁쟁’ 소리를 내는 것 역시 공명(共鳴)이라 볼 수 있어.
- ② ‘바람’이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은 바람의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바람’의 탄생이라 볼 수 있지.
- ③ ‘어머니’가 만든 ‘여백’이 ‘나’와 ‘너’를 포용하더라도, 어머니를 잃은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
- ④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스러질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공간인 ‘무덤’에 잠들게 되겠지. 이 시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백’이 탄생하고 있어.
- ⑤ ‘여백’이란 모든 부재하는 존재가 남기는 쓸쓸한 공간이지만, 텅 빈 공백(空白)의 공간은 아니야. 부재(不在) 뒤 생성된 무언(無言)의 여백이 ‘나’에게 위안을 주거든.

2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제 36년 + 옥고 4년 + 분단 30년 = 나의 인생 70.
∴ 70 - 70 = 0의 인생
위의 수식은 김광섭 시인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역정을 간단한 등식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는 시가 현실적 행동과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현실을 격렬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질서를 보편화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다.

- 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한 물결’에 비유한 것은 ‘바람’이나 ‘구름’에 영향을 받아 민감하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겠지.
- ② 이런 연약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고기를 낚는 사람’은 나의 이권을 쟁탈해 가는 이라 할 수 있겠어.
- ③ 그렇다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일깨우는 시인, 즉 화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 ④ 이런 ‘외로운 밤’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상향인 ‘백조’가 오리라는 희망은 ‘행여’라는 말처럼 희박하기만 하군.
- ⑤ 화자는 ‘백조’가 와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며 ‘밤마다 꿈을 덮’어 가며 마음에 물결이 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

29. ㉠~㉥ 중 [A]에 형상화된 삶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묵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묵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묵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일상적 경험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시어를 통해 시상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가을에 풍년이 든다는 전통적 속설과 관련된 표현이다.
- ② ㉡ : 폭설의 상황에 대해 화자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③ ㉢ : 한계령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④ ㉣ : 화자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다.
- ⑤ ㉤ : 눈이 녹으면 고립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표현이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역설이란, 표면상으로는 모순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표현법이다. 역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와 상반되는 진술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역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에 대한 비논리적 서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 서술 행위이다.

- ① ‘뜻밖의 폭설’은 화자가 전달하려는 근본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시적 설정이다.
- ② ‘눈부신 고립’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구성된 비논리적 표현이다.
- ③ 한계령에 ‘기꺼이 묵였으면’이라는 화자의 소망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람이다.
- ④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이다.
- ⑤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못 잇을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으로 볼 수 있다.

Day 5

26	①	27	⑤	28	③				
29	④	30	③	31	④	32	④		

[29 ~32] 작품 Comment

<2012학년도 인터넷수능-운문 현대시>

2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 (다)는 회고적 어조로 과거에 대한 그리운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다)는 4연에서 회고적 어조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오나, (나)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③ (가), (다)는 일반적 어순을 도치하여 시상에 변화를 주고 있다.
-  (가)는 어순 도치가 활용되었으나, (다)는 어순 도치가 활용되지 않았다.
- ④ (가), (나), (다)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가),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가)의 경우는 ‘너’가 드러나 있지만 너에게 말을 건다기보다 홀로 독백하는 것에 가깝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나)에서는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가 시냇물 따라 흘러가서 ‘쟁쟁쟁’ 소리를 내는 것 역시 공명(共鳴)이라 볼 수 있어.
-  ‘서울에서 묻혀 온 잔소리’는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 ‘여백’을 만든다. ‘쟁쟁쟁’하는 시냇물 소리는 이 시의 ‘여백’이 만들어 낸 공명(共鳴)의 소리라 할 수 있다.
- ② ‘바람’이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은 바람의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바람’의 탄생이라 볼 수 있지.
-  ‘바람’이 ‘오솔길’로 사라지면서 더 큰 ‘여백’을 탄생시킨다.

③ ‘어머니’가 만든 ‘여백’이 ‘나’와 ‘너’를 포용하더라도, 어머니를 잃은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

 <보기>에 따르면 ‘여백’은 비어 있지만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이를 이 시에 적용해 보면, 어머니의 부재로 생긴 여백, 즉 공명(共鳴)의 공간에는 어머니의 포용력 있는 사랑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를 잃은 공허함을 메울 수 있다.

④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스러질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공간인 ‘무덤’에 잠들게 되겠지. 이 시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백’이 탄생하고 있어.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스러져 내가 ‘무덤’에 잠들 때, ‘나’는 ‘너’에게 ‘여백’이 되어 줄 수 있다. 즉, 존재의 소멸이 여백을 낳아, 살아있는 존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다.

⑤ ‘여백’이란 모든 부재하는 존재가 남기는 쓸쓸한 공간이지만, 텅 빈 공백(空白)의 공간은 아니야. 부재(不在) 뒤 생성된 무언(無言)의 여백이‘나’에게 위안을 주거든.

 <보기>에 따르면 여백은 비어 있으며 채워진 공간으로서, 텅 빈 공백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덤 속의 잠드신 어머니의 무언(無言)이야말로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되며, 화자는 어머니가 만드신 커다란 여백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한 물결’에 비유한 것은 ‘바람’이나 ‘구름’에 영향을 받아 민감하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겠지.
-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진다는 것에서 ‘고요한 물결’에 비유된 나의 마음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이런 연약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고기를 낚는 사람’은 나의 이권을 쟁탈해 가는 이라 할 수 있겠어.
-  이런 연약한 ‘고요한 물결’에 ‘돌을 던지는 사람’과 ‘고기를 낚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그렇다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일깨우는 시인, 즉 화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화자의 고요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방해꾼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런 ‘외로운 밤’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상향인 ‘백조’가 오리라는 희망은 ‘행여’라는 말처럼 희박하기만 하군.
-  <보기>를 통해 화자는 ‘외로운 밤’으로 표상되는 부정적인 현실을 거부하고 ‘백조’로 표상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여’라는 말로 그 가능성은 희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백조’가 와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며 ‘밤마다 꿈을 덮’어 가며 마음에 물결이 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
-  <보기>를 통해 화자는 비록 자신의 세대에는 그 결실을 볼 수 없더라도 한평생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헌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이상향인 ‘백조’가 오기를 기다리며 물가가 어지럽지 않도록 ‘밤마다 꿈을 덮’어가며 보호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29. ㉠~㉣ 중 [A]에 형상화된 삶과 거리가 먼 것은?

④ ㉠

☞ [A]에 형상화된 남사당으로서의 삶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아 다니며 장바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은반지를 주고 싶은’에는 정착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으므로 남사당의 방랑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33~35] 작품 Comment

<2014 수능완성 A형 현대시>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일상적 경험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 이 시는 화자의 일상적 경험이 아니라, 화자가 폭설로 인해 못 잇을 사람과 함께 있는 상상을 시의 소재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이 시에서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거나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2연의 ‘오오, 눈부신 고립’이라는 영탄적 표현에는 ‘못 잇을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되어 고조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④ 특정 시어를 통해 시상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 이 시에는 시상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이 시의 화자는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못 잇을 사람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가을에 풍년이 든다는 전통적 속설과 관련된 표현이다.

☞ 뉴스에서 폭설을 예보한 것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가을에 풍년이 든다.’라는 전통적 속설과 관련지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 : 폭설의 상황에 대해 화자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다.

☞ 화자는 못 잇을 사람과 함께 머물기 위해 폭설이 오면 발이 묶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동차들은 폭설로 인한 고립을 피하고 싶어하므로 둘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 : 한계령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임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조난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 화자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다.

☞ ㉣ 화자는 이처럼 자신을 구조하려 오는 헬리콥터를 단호하게 외면함으로써 못 잇을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헬리콥터는 화자에게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⑤ ㉤ : 눈이 녹으면 고립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표현이다.

☞ 폭설로 인한 고립은 결국 눈이 녹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므로 못 잇을 사람과 함께 머무르는 고립의 상황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뜻밖의 폭설’은 화자가 전달하려는 근본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시적 설정이다.

☞ <보기>에 제시된 ‘근본적 의미’는 역설적 표현 속에 담긴 본래적 의미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는 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임과 함께 한계령에 머무르게 하는 ‘뜻밖의 폭설’은 이러한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시적 장치이자 설정으로 볼 수 있다.

② ‘눈부신 고립’은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구성된 비논리적 표현이다.

☞ ‘눈부신 고립’은 ‘눈부신’과 ‘고립’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표면적으로 모순을 이루고 있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한계령에 ‘기꺼이 묶였으면’이라는 화자의 소망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람이다.

☞ 한계령에 ‘기꺼이 묶였으면’이라는 화자의 소망은 폭설로 인한 고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웃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이다.

☞ 화자가 웃자락을 보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폭설로 고립된 상황에서 구조를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못 잇을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으로 볼 수 있다.

☞ ①의 해설 참조